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신명기 6:2-6	제2독서	히브리서 7:23-28	복음	마르코 12:28-34
--------	------	-----------	------	--------------	----	--------------

연중 제31주일 강론

태화동 성당에서는 장례가 생기면 장례 후, 다가오는 주일 교중 미사를 마치고 모든 신자가 함께 고인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고인을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드리면서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연도를 모든 신자가 함께 바치는 모습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첫째가는 계명과 둘째가는 계명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선물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을 드리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선물을 가장 작은 이를 통해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내 주위 이웃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그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발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혹여 나의 지레짐작으로 내 입장에서 성급하게 사랑을 표현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더욱 성숙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기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정말 바꾸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랜 시간 많은 공을 들여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선의는 언젠가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11월5일(화)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교 무 금	\$ 1,168.00 \$ 2,700.00
11월6일(수)	연중 제31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성 물 방 자 선 비	\$ 33.00 \$ 40.00
11월7일(목)	연중 제31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성소후원 도네이션 등	\$ 50.00 \$ 4,752.00
11월8일(금)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구역미사		
11월9일(토)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8,743.00
11월10일(주일)	연중 제3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18명 성인: 155명
교무금 봉헌자	허호영.김운태,최정신,장석자(11-12)임현재.박용호(10-12)박지은(9-12)최중구(7-12)윤영자(10-11)임원호 류승교(9-10)임복순(5-6)김정홍.조영진(10)윤재경(11)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가톨릭교회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위령의 날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는데요. 이달에는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죽은 부모나 형제, 친지들을 위해 제사를 바치는 관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조상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가톨릭교회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오래전부터, 특히 4-5세기경부터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조문을 모아놓은 사도신경 안에서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와 같이 성인통공 교리를 믿어왔습니다. 이 성인통공 교리는 교회를 이루는 세 구성원들, 즉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모든 성인의 날),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새롭게 선업을 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이 더욱 필요하다.)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이 서로의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교회의 기도에는 바로 죽은 신자가 살아있는 신자들의 연대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희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스스로는 자신에게 어떤 의지도 부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 뒤에 그를 지탱시켜 주는 교회의 청원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사랑의 한 가지 모습, 하느님 앞에서의 인간적 연대성의 공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위령 성월의 이러한 영적 선익은 위령의 날을 전후한 11월 1-8일 묘지를 찾아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대사 은총이 핵심인데요. 고해성사, 미사참례와 영성체, 교황 기도 지향에 따른 주모경 봉헌 등 조건을 지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어 ‘통공’에 대한 믿음으로 신자들이 누리는 영적 치유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령 성월의 기본 바탕은 하느님 백성 간의 사랑과 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유대는 예수님께서 첫째가는 계명으로 또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은 비단 이웃 사랑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공을 초월하여 이미 죽은 이들과의 사랑의 유대로도 뻗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위령 성월의 근본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요, 하느님 백성 전체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또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령 성월을 맞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닌 백성의 구원, 즉 공동체의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마저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무참히 죽는 고통마저 감수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랑의 사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초등부 교사연합회 월례 교육 자료 중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허로사, 양베로니카 영육건강	성모회
연	김병길 베드로 영혼	김명희 수산나 가족	생	(생일)윤호현 마르띠노 영육건강	윤은실 비비안나
연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 영혼	천상의모후Pr.	생	김라파엘, 김바오로 영육건강	김명희 수산나
연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 영혼	셋별Pr.	생	가족(아녜스) 영육건강	김광희 프란치스코
연	세상을 떠난 레자오 단원들 영혼	사도들의모후Pr.	생	성소후원회 회원들 영육건강	성소부
연	(기일)왕희춘 영혼	안혜숙 세실리아	생	아들 Shawn Hovey 영육건강	김평옥 모니카
			생	(생일)서주연 메리 영육건강	아빌라데레사회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3일(주일) 성당에서 오후 1시 출발
참여단체: 순교자들의모후Pr. 사도들의모후Pr.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2. 본당 구역장회의
일시: 3일(주일)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본당 울뜨레아
일시: 3일(주일) 교중미사후 성가대방
본당 꾸르실리스따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7일(목) 저녁8시. 성당
저녁7시(찬미) 저녁7시 30분(묵주기도)
저녁8시(미사, 성시간 및 안수예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 9일(토) 오전10시30분. 성당
(일반 신자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에서 요셉회.안나회가 있습니다.
6. 본당 꾸리아
일시: 10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뵤레시디움 4간부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7. 11월 구역미사 (10구역)
일시: 8일(금) 오후6시
장소: 박기승 레오, 윤영실 에밀리아나 (자택)
8. 구역모임 및 단체활동
2구역: 10일(주일) 9시미사후 야유회
6구역: 23일(토) 오후5:30 김상범 히지노(덕)
17일(주일): 교중미사후
5구역(데레사방) 7구역(마태오방)
8구역(요한방) 9구역(루카방)
사회복지부: 3일(주일) 오전8시 홀리스 음식봉사
9. 사랑의 급식 안내
1) 11월3일 (주일): 여성부 (성모회)
메뉴: 소고기 미역국 금액: \$5
2) 11월17일 (주일): 10구역
메뉴: 카레 금액: \$5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10. 감사합니다.
사랑의급식(1-1구역) 수익금: \$64.55
11. St. Mary Cemetery 한국세션 Promotion 안내
기간: 10/27~11/30 까지 (5주간)
내용: 프러모션 기간중 특별 할인 판매
문의: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 복사단 상시모집중: (문의) 복사단장 장현철 엘리야

<< 주일학교 >>

중.고등부 피정 (8th~12th학년)
일시: 1일(금)~3일(주일)
장소: Redwood Glen Campgrounds in Loma Mar CA

화답송	 <p>저 의 힘 이 신 주 님 당 신 을 사 랑 하 나 이 다</p>				
전례봉사	연중 제31주일 (11/3)	연중 제32주일 (11/10)	연중 제33주일 (11/17)	그리스도왕대축일 (11/24)	
미사해설	오민정 / 조용주	지혜진 / 김진영	김아영 / 최금주	박문교 / 정미정	
독서	9시	김원민 / 김완기	김아영 / 김주영	허준희 / 김가연	제임스 / 윤지명
	11시	전우성 / 전병옥	김규철 / 김희정	윤재경 / 윤은실	임정남 / 양방림
복사	9시	오은수 / 허준희	황건영 / 박예진	지마리 / 임가빈	김노아 / 김가윤
	11시	송돈희 / 장현철	김영준 / 권오승	최준우 / 윤지현	김규철 / 최준우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 모후Pr.	셋별Pr.	천상의 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업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업(바로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부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